



## 근조 연합뉴스

### “박정찬을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연합뉴스 노조는 21일 박정찬 사장 연임을 막기 위한 전 조합원 총집결 투쟁을 벌였다. 우리의 의지와 상반된 주총결과가 나왔지만 노조는 박 사장 퇴진 운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조합원 31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40분 본사 앞 한빛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사장 연임 저지의 뜻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지난 15일 총파업 출정식 이후 또다시 300여명이 넘게 모여 연합뉴스 노조의 단결력을 재과시했다. 제주를 비롯해 지방취재본부 조합원 90여명 가운데 70명가량이 상경해 뜨거운 투쟁의지를 보였다.

11시30분 주총 개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은 본사 건물 정·후문과 주총장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주총장을 찾는 주주사 관계자에게 박 사장 연임의 부당성을 알렸다.

30분 남짓 진행된 주총 후 박 사장은 조합원들의 ‘물러나라’라는 구호 속에 사장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주총 후 열린 이사회에서 박 사장 선임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노조는 ‘근조 연합뉴스’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연합뉴스를 망쳐놓은 총 책임자 박



사장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연합뉴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노조는 “살인적 노동 환경으로 입조차 열지 못하는 불통의 시대로, 끝없는 전횡과 횡포의 늪으로 내몬 박 사장과 하루라도 더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박 사장이 연합을 떠나는 그날까지 끝

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연합뉴스노조는 박정찬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오늘부터 매일 오전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노조 투쟁기금으로 조합원 성금 릴레이

연합뉴스 노조 투쟁기금의 계좌로 국내외 조합원들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21일 현재 기부 건수가 60여건에 달하며 성금은 1천400만원이 넘었다. 파업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 모인 거금이다.

노조는 15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투쟁기금을 십시일반하자 16일 공식적으로 투쟁기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다양한 사연이 담긴 조합원의 성금은 노조 재정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매일 많은 조합원이 투쟁에 동참한 탓에 식사비와 각종 선전물 제작 비용 등으로 지출이 많아져 투쟁기금의 고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각각의 성금엔 이번 파업 투쟁에 힘을 보태려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엿볼 수도 있었다.

결혼을 앞둔 김병규-장하나 예비부가 최고액의 거금을 쾌척했다. 지면을 통해 액수를 밝히길 꺼린 김병규 조합원은 “기업 협찬성 기사를 쓰고 받게 된, 받고 싶지 않은 돈”이었다면

서 “원래 사회재단에 기부하려다 노조 투쟁기금으로 보탬”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조합원은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 다신 이런 기사 절대 안 쓰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있다”고도 했다.

세계 각지로 나간 특파원과 국외연수자들의 기금 접수도 잇따랐다. 재외기부자 5명이 낸 성금이 210만원에 달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투쟁 대열에 뜨겁게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급이

상 간부 10여명도 각자 ‘남몰래’ 기금을 보내며 노조의 파업에 힘을 실어줬다.

지역취재본부 조합원들은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나오는 돈을 투쟁기금으로 내놓았고, 수습 신분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33기 사원도 투쟁기금을 보탬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도 30만원을 쾌척하며 연합뉴스 노조의 파업투쟁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 지금 지역취재본부는 투쟁중 경기본부 “우리는 하루에 세 가지나 했다”

경기취재본부 조합원은 20일 주주사 방문, 등산 투쟁, 파업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이날 활동엔 본부 사원 13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전 조합원 9명이 참여했다.

신영근, 최찬홍, 최종호 조합원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지역 유일의 연합뉴스 주주인 경인일보사에 방문해 이 회사 이강범 상무이사에게 박정찬 사장 연임 저지를 촉구하는 노조의 공문을 전달했다.

최찬홍 노조부위원장은 “공정보도라는 대의를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된 기자들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했고, 이상무이사는 “고생하는 연합뉴스 기자들의 마음이 와닿는다”고 답했다.

앞선 오전 9시 김광호, 강창구, 김경태, 김인유, 김채현, 이영주 조합원은 120만 수원시민의 휴식처인 광고산을 찾았다.

조합원들은 ‘분노하라! 연합뉴스’라

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등반하면서 중간중간 “연합뉴스 바로 서야 한국언론 바로 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기본부 전 조합원들 오전 활동을 마치고 정오께 광고산 입구에서 점심을 함께 하며 오전 활동에 대해 담소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노조원들은 최찬홍 노조 부위원장의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신영근 조합원이 “찬홍이가 잘리면 석달치 짙은 내가 제공한다”고 하자 김인유 조합원이 “반찬은 내가 맡겠다”고 되받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노조원들은 경기본부 사무실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겨 노조에서 요구한 ‘파업 활동 동영상 제작’ 작업에 들어



갔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에서 사장 연임 반대를 외치다!’, ‘열심히 일한 박 사장, 떠나라!’ 등 참신한 구호가 제안된 가운데 동영상 제작에 쓰일 피켓을 만들었다.

최찬홍, 김채현, 이영주, 최종호 조합원은 한 시간에 걸쳐 만든 피켓 9개

를 들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에 갔다.

조합원들은 이곳에서 ‘세계문화유산에서 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연합뉴스 기자들의 시위가 열려 유네스코 측의 항의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30초 분량의 영상을 찍고 이날 활동을 마무리했다.

# 파업 투쟁 속에서 사랑의 열매 맺는 조합원들 “허니문 푸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파업 투쟁의 열기가 더해가는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을 앞둔 조합원들이 있다.

투쟁 현장에서 여러 번 소개된 사내 커플인 김병규(미디어과학부)-장하나(정치부) 조합원이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노조 쟁의부장인 김병규 조합원은 “두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준비하기가 쉽진 않다”면서도 “파업도 결혼도 우리 두 사람에게 모두 중요하고 잘 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결혼 준비에 차질은 없느냐는 물음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다. 나머진 좀 엉성해도 괜찮다”라며 두 사람의 돈독한 애정을 과시했다.

25일 오후 12시30분 경북 문경시 공평동 가야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양영석(대전충남취재본부) 조합원은 파업 중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상황때문에 예비신부에게 못내 미안해 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파업 기간엔 월급이 안 나온다는 설명에 “우리는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허니문 푸어’ 되겠다”는 예비신부의 말을 그냥 웃어넘겼지만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고 한다.

장모님께도 파업 얘기는 꺼냈지만, 차마 ‘월급’ 얘기는 말할 수 없었다.

그동안 주말에도 스포츠 사진 촬영 때문에 예비신부와 시간을 못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던 장모님은 “잘됐다”고 하시지만, 이 또한 양 조합원의 마음이 무겁게 했다.

그래도 “연합짜라시라는 말 듣는 것보다 파업해서 회사가 정상화되는 게 낫다”며 응원해주는 예비신부에게 양 조합원은 고마움을 전했다.

뉴스와이에 파견된 전성훈 조합원은 오는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랑의 서약을 맺는다. 전 조합원의 예비신부인 마송은 씨가 노조에 응원의 글을 보내 전문을 신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보도채널 뉴스와이 사회부의 전성훈 기자와 31일 결혼을 앞둔 마송은이라고 합니다.  
예비남편은 누구보다 연합뉴스를 사랑합니다.  
다른 언론사에 비해 업무 강도가 센 편이지만 ‘언론의 언론’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보도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연합뉴스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며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못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의 생활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방송리포트 제작을 멈췄고, 마이크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하겠다고는 신념 하나로 자신을 지탱해 온 그이지만, 지금 현실은 역부족인 듯합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연합뉴스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공정보도의 기치를 치켜드는 모습은 다행스럽습니다.  
결혼을 앞둔 제게 지인들은 예비 남편의 파업에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합뉴스를 바로 세우려 애쓰는 그에게 오늘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멈춤’이 연합뉴스가 다시 뛰기 위한 숨 고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연합뉴스 노조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